

## ‘도천지장법’을 권한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선임연구위원  
2019.07.08.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예상치 못한 핵심 부품 수출 금지라는 기습 공격을 받고 나라경제가 휘청거릴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맞고 있다. 국교 정상화 이후 우방국 관계를 이어온 것이 반세기가 넘었는데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강제징용 판결로 촉발된 갈등이 ‘갈 데까지 가보자’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예견된 갈등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에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하지만 한·일의 정부 대 정부의 대결이다. 잘잘못을 떠나 하나로 뭉쳐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이미 불붙어 버린 외교 전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먼저 이번 사건이 확산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동양 병법의 교과서 격인 손자병법의 가장 큰 교훈은 ‘전쟁을 피하라’는 가르침이다. 이기든 지든 피해가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 상황은 준비 부족으로 우리가 이기기 어렵다. ‘상대를 공격할 때는 계략과 관계를 타파(伐謀筏交)’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반대다.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의 파급효과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 준비된 대책도 없고, 일본이 함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한·미동맹을 활용하는 일도 소홀했다. 외교 교섭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시간을 벌며 확산을 피해야 한다.

다음으로 외교 전쟁에서의 승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손자병법은 이를 ‘도천지장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도(道)는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이번 싸움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현 상황은 준비 부족으로 대승을 거두기 어려운 형국이다. 그렇다면 우선은 비기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일본을 무릎 꿇리려고 전면전을 벌이려 한다면 자칫 대패를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어렵게 만들어 놓은 한·일 간 수평관계가 다시 수직관계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천(天)은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행보가 미국이 목인한 사안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만일 일본이 그간의 대미 밀착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논의한 정황이 있다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이때는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타협을 취해야 한다. 반대로 미국이 관여되어 있지 않다면 미국을 설득해 한국에 선공을 취한 일본을 강도 높게 압박해야 한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지(地)는 외형 조건에 대한 분석이다. 일본의 제재로 우리 기업들이 지닌 시장 점유가 흔들릴지를 파악해야 한다. 우리 기업을 대체할 일본이나 제 3 국의 기업이 존재한다면 이 싸움은 오래갈 수 있다. 그게 주목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주력 기업이 충격을 받으면 바둑에서 대마가 죽듯 우리 경제도 죽는다. 반대로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당히 문제를 풀 수 있다.

장(將)은 책임자에 대한 분석이다. 지난 몇 개월간 예상되었던 일인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야 호들갑 떠는 모습에서 국가안보실이나 외교부의 역할이 개탄스럽다. 하지만 전투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것은 병법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 일단은 이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고, 나중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法)은 조직과 업무 편성이다. 국가안보실은 일본 총리실을, 외교부는 일본 외무성을, 산업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을 일대일로 맡아 설득해야 한다. 또한 일본 내 여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걱정하는 일측 언론사와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아베 신조 총리를 설득할 수 있는 지일파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을 총동원하고 전방위로 설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인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우리는 그간 일본을 어떻게 대해 왔나.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를 이유로 나쁜 이웃으로 대해 왔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20, 30 대에겐 증조할아버지의 잘못이다. 무조건적인 비난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왔다. 정부 국정과제에 기술된 대로 역사 문제와 협력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 본 글은 7 월 8 일자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